

서울시 근대 양식건축 파사드의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acade Expression of the Modern Western Style Architecture in Seoul

이완건* / Lee, Wan-Geon

정례화** / Jung, Rye-Hwa

Abstract

Urban is made over a long period of time. In the process, architecture involves design characteristics of age and place. In the case of modern western style architecture, just depend on the economic logic, they are continuously threatened during urban change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cognize modern western style architecture as valuable things, which represents color of urban, and to seek how it can be reused. This is a process in order to find a new method for conservation and reuse of modern western style architecture. The result are as followings. Modern western style architecture must be recognized as resource, which expresses identity of urban, and found a method for conservation and reuse of facade at least. So we need to search design characteristics of facade. It has been analyzed that assigned modern western style architecture in seoul can be divided into 6 groups. Each group has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facade expression, which is 'dormer', 'vent', 'balustrade', 'cornice', 'dome', 'tower', etc in top part, and 'the shape of window and door', 'the element of ornament', 'finish', etc in middle part.

키워드 : 근대 양식건축, 파사드, 디자인 특성, 보존, 활용

Keywords : Modern Western Style Architecture, Facade, Design Characteristic, Conservation, Reuse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건축은 도시의 변화과정 속에서 시대와 장소의 양식적 특성을 지닌 채 도시의 구성요소로서 만들어지고 사라지는 일련의 과정을 거친다. 이 속에서 점적 요소인 건축들은 나름대로 도시의 일부분으로서 특색 있는 장소를 만드는 구성인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그러나 현대도시의 빠른 팽창 속에서 건축의 이러한 유·무형의 가치는 무시된 채 경제적 논리에 의해서만 평가 받고 있는 실정이다.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건축들은 법에 의해 원형이 보존되지만 그렇지 못한 것들은 사라지는 양분법적인 논리가 적용되어 도시는 고층의 국적불명의 건축들로 채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의 도시는 근·현대기의 짧은 시간동안 과거와 단절된 현대도시로 탈바꿈하였다. 과거의 것은 쓸모없는 것이란 개발

제일주의적 사고 아래 오래되고 불편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와 친숙한 주변 건축들이 훼손되는 전철을 밟아왔다.

본 연구는 도심 속에서 의미 있는 건축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고, 특히 근대 양식건축과 같이 현재에도 사용되고 있으면서 물리적 기능이 보완되어야 할 현시점에서 이에 대한 보존과 활용의 방안을 모색해 가는 과정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이를 위한 선행 작업으로 먼저 가로와 면하고 있는 건축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파사드의 디자인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차후 이들 근대 양식건축이 지닌 파사드의 디자인특성을 이용하여 과거와 현재의 시간이 공존하는 가로, 더 나아가 역사가 살아 있는 도시경관을 창출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근대 양식건축을 도시공간 속에서 가로를 구성하는 인자로 인식하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서울시에 소재하는 근대 양식건축 가운데 국가지정문화재인 24개 '사적'을 대상으로 현장답사 및 문헌 조사를 실시

* 정희원, 세명대학교 건축공학과 전임강사, 공학박사, 건축사

** 정희원, 에이앤지 건축사사무소, 공학박사, 건축사

하였고 이를 통하여 파사드의 표현 특성을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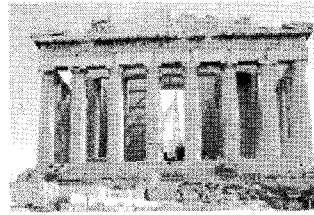
연구의 진행은 2장에서 파사드의 일반적인 고찰로 파사드의 개념, 의미, 구성체계를 고찰하고, 3장에서는 근대 양식건축의 파사드 구성에 대한 것으로 근대 양식건축과 장소성, 선개념의 근대 양식건축 파사드 보존과 활용, 파사드의 구성요소를 살펴 보았다. 4장에서는 서울시의 사적 근대 양식건축을 대상으로 현황 및 지정사유, 파사드의 디자인 특성을 분석하고, 5장에서 결론을 도출하였다.

2. 파사드의 일반적 고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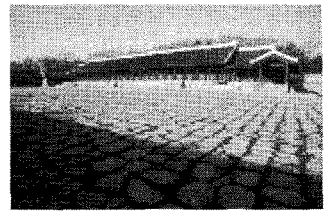
2.1. 파사드의 개념 및 의미

파사드는 건물의 기능과 중요성을 전달하는 가장 본질적인 요소이다. 건물의 완벽성은 길에 접한 '보여주는 면'의 창작에 의존한다. 최근 도시적 삶의 가치와 공공 영역의 중요성이 재발견된 이래 파사드는 새로운 평가를 받게 되었다. 파사드는 결코 내부의 기능에 의해 결정된 '본질적 수요'만을 수용하는 것은 아니다. 파사드는 그 당시의 문화적 상황을 표현하고 오더와 장식의 효용성과 기능성을 구현해야 한다. 또한 거주자나 커뮤니티의 정체성(identity)을 표현하며 궁극적으로 일반의 독자성을 재현한다.¹⁾ 파사드(facade)는 얼굴(face)과 외관(appearance)의 합성어로 라틴어 'facies'에서 유래되었다. 즉, 외관의 얼굴로 건물을 사람으로 비유한다면 신체에서 얼굴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전적 의미는 건물의 입면 중 출입구가 있는 정면과 거리에 면하고 있는 입면으로 정의되며, 로브 크리에(Rob Krier)는 '건축에 있어서 파사드는 건물의 얼굴로서, 건물의 기능적 표현과 의미를 전달하는 요소이다'라고 하였다.²⁾ 파사드의 중요성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역사가 깊다. 이라크 우르(Ur)의 지구라트(BC 2100년경)의 경우, 상부 신전으로의 접근을 위한 세 개의 계단과 탑으로 구성된 파사드는 상징성과 정면성을 강조하고 있고, <그림 1>의 파르테논 신전과 같이 미케네의 메가론 평면에서 유래한 고대 그리스 신전은 하나의 문과 방 그리고 전면에 열주 현관(portico)이 있는 정면으로 구성되어 있음은 널리 알려져 있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고전건축의 어휘들을 재해석하여 내부공간 뿐만 아니라 파사드 구성에도 적용하였고 이러한 파사드를 통한 건축의 의미전달 기능은 근대건축 이전까지 계속되었다. 한국 전통건축에서도 건물의 성격에 따라 파사드의 디자인이 다른데, 세계문화유산인 조선왕조 역대 임금의 신위를 모신 <그림 2>의 종묘 정전은 의식을 위한 기둥에 의한 넓은 처마공간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파사드는 가장 쉽게 인지되면서도 건물의 성격을

규정짓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 도릭오더의 기둥들로 구성된 파르테논 신전의 파사드



<그림 2> 익공양식의 기둥들로 구성된 종묘 정전의 파사드

2.2. 파사드의 구성체계

디자인은 기본적으로 조형요소와 조형원리로 구성된다. 강명구(1993)는 10대요소(점, 선, 면, 방향, 형과 형태, 명암, texture, 크기와 양, 공간, 착시)와 10대원리(조화, 대비, 통일, 반복, 리듬, 점이, 대칭, 균형, 비례, 색채)로 설명하고 있으며 파사드의 구성도 여기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건물의 입면 구성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대부분 땅과 접하는 부분(기단부, base), 지붕(top) 부분 그리고 그 사이가 되는 중간 부분(벽체부, middle)의 3 분할로 구성된다. Irwin(2003)은 <그림 3>과 같이 건물의 입면이 상(top), 중(middle), 하(base)의 3단 구성으로 되어 있고 이를 'tripartite composition' 또는 'three-part composition'라고 부르고 있다. <그림 4>의 한국전통건축에서도 입면이 3분(三分)의 수직체계로 구성됨을 알 수 있다. 서유구의 임원경제지에서는 "무릇 가옥에는 삼분(三分)이 있다. 들보 이상은 상분(上分)이요, 집 바닥 이상은 중분(中分)이요, 기단(階)은 하분(下分)이다. 들보, 서까래, 기둥, 네모서까래, 계단은 모두 척도(尺度)가 서로 대응을 이루고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조형예술에 있어서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의 본질을 상(象)이라고 하고 표현된 대상의 외형을 형(形)이라 한다면, 전통건축을 인식하는 전통사회의 체계는 천(天)·지(地)·인(人)의 삼재(三才)를 상(象)으로 하여 이에 대응하는 삼분적 건축요소의 형(形)을 취함으로써 천지교통의 성역을 이루려 했던 것이다. 이러한 삼분법적 인식체계는 각 부분의 재료를 선택하고 형상화하는데 규범이 되었을 것이며, 각 부분의 상과 그 관련성에 따라 분할과 비례로서 균제를 얻었을 것이다.³⁾

지붕 (top)	天
벽체/기둥 (middle)	人
기단 (base)	地
건축 요소	象



<그림 3> 빌라 카프라의 3분할 구성



<그림 4> 창덕궁 연경당 사랑채의 3분할 구성

1)Rob Krier 저, 진경문·박종호 역, 건축의 구성론, 미건사, 1994, p.122

2)Rob Krier, Elements of Architecture, AD Publication Ltd, 1983, p.53

3)강영환, 전통건축의 입면체계 : 그 상과 형, plus, 통권24호, 1989, pp.153~154

3. 근대 양식건축의 파사드 구성

3.1. 근대 양식건축과 장소성

동아시아 여러 나라의 근대적 시기는 1860년대 전후를 기점으로 해서 1965년까지로 보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876년부터 1945년까지가 오늘의 시점에서 근대가 되고 그 이후가 현대이다.⁴⁾ 이 시기를 연구자에 따라 세분하여 분류하기도 한다. 이들 각 시대는 역사상으로 뚜렷하게 이질적인 양상이므로 건축에 있어서도 그에 따르는 시대구별은 적절한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겠다. 한국에 서양식 건축⁵⁾이 유입된 경로는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경로로 유입된 것이므로 그 양식에 공통된 것이 있을 수 없었다. 그것은 한국의 특수한 정치사에 있어서 기대할 수 없는 일이었다.⁶⁾ 본 연구는 일반적인 시기 분류에 따라 개항이후부터 해방 이전까지의 건축을 근대 양식건축이라 정의하고자 한다.

아테네나 로마같이 오래된 도시에서처럼 서울 역시 고전건축(조선 이전), 근대건축(1876~1945) 그리고 현대건축(1945년)이 서로 자신의 위치를 정하고 랜드마크로서 이미지를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기차역이나 시청 등의 공공건물이나 은행, 백화점, 문화시설 등은 근대건축물이라는 하나의 고유명사로 우리에게 가깝게 남아 있다.⁷⁾

건축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도시의 다양한 모습을 담게 되고 우리 삶이 몸담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때 인간은 자신과 함께 해온 이러한 건축들과 다양한 대화를 하게 된다. 약속의 장소로, 추억의 단편 등으로 우리 기억 속에 자리 잡게 된다. 건물 가치의 경중을 떠나서 이러한 흔적들이 오랫동안 제자리에 많이 남아있을 때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이다. 팔림프세스트(palimpsest)라는 단어는 그리스어에서 나온 말로 'palim(다시)'와 'psestos(지우다)'의 합성어이다. '그 위에 다시 쓰려고 본래의 글자를 문질러 지운 양피지'란 뜻인데 먼저의 흔적이 어떻게든 배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전의 건물이 철거된 곳에 현재의 새로운 건축물이 서 있는 도시도 이와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다. 역사적인 도시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역사의 팔림프세스트'이다. 김정신(1995)은 도시환경이 시대의 흔적을 보존해야 하는 당위성을 5가지 즉, 역사성, 연속성, 다양성, 장소성 그리고 교육의 장으로 보고 있다.⁸⁾

근대 양식건축은 우리나라 근대기라는 시간과 장소의 의미를 지닌 흔적으로서 가치를 지니게 된다. 린치(Lynch)는 문화

제가 시각적 랜드마크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상징적 랜드마크의 역할도 지니고 있다고 하였으며 문화재 및 대표적 건물들은 그 자체가 지닌 전통적인 분위기 및 역사성으로 인하여 누가 의미를 부여하기 이전에 스스로 나름대로의 상징성 및 이미지를 지닌다.⁹⁾ 근대 양식건축 또한 시각적이고 상징적인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고 이르기 위해선 장소성 또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3.2. 선개념의 근대 양식건축 파사드 보존과 활용

가로공간은 이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가 집적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양한 효과를 취하며, 인간생활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달하여 왔다. 특히, 가로를 배경으로 한 다양한 활동의 전개는 도시민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노상의 드라마'가 연출되는 최고의 무대¹⁰⁾로서 도시공간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도심 가운데 위치하는 근대 양식건축은 이러한 차원에서 많은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 근대 양식건축을 과거 암울했던 시기의 부산물로만 생각하고 경제적 논리에 의해 쉽게 훼손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를 이용하여 완전한 철거보다는 팔림프세스트를 남겨 놓음으로서 도시의 정체성을 확보할 자원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근대 양식건축 전체를 완전히 보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건물의 일부분이라도 보존하면서 이를 활용할 방안들을 찾아야 할 것이다.

<표 1> '부분보존(部分保存)'에 따른 일본 근대 양식건축 보존유형 및 사례

유형	내용	대표사례
동별 보존	건물 한 동(棟)과 일부분 보존	日本生命京都三條 빌딩
	건물 외관 보존	
외관 보존	외피 보존 외관을 보존함과 동시에 마감 재료 등의 외장(外裝) 보존	神戸水の 科學博物館
파사드 보존	도로에 면한 전면부(全面部)만을 보존	神戸地方裁判所
엘리먼트 보존	건물의 상징으로서 요소(Element) 보존	日本生命横浜빌딩
인테리어 보존	건물 실내(Interior) 보존	DN 타워21



<그림 5> 세인트 폴 대성당의 파사드(左), 뒷면 지지부(中), 복원된 아이소메트릭 도면 표지판(右)

일본에서는 1980년 이후 근대 양식건축을 재생하여 활용하려는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이를 유형별로 정리해보면, 크게 전면보존, 부분보존 그리고 이미지 보존으로 나눌 수 있다. <표 1>¹¹⁾과 같이 부분보존의 한 방법으로 '파사드 보존'이 제

4)김정동, 근대건축기행, 푸른역사, 1999, pp.20~21

5)이전의 전통건축과는 다른 양식의 건축으로 양식(洋式), 양풍(洋風), 이양(異樣) 건축 등으로 불린다.

6)윤일주, 한국·양식건축 80년사, 치정문화사, 1972, pp.14~17

7)김정동, 앞의 책, pp.30~31

8)김정신, 시대흔적의 보존, 건축, 제39권 제7호, 대한건축학회, 1995.7, p.18

9)오선경, 한국근대건축에 나타난 의장요소에 관한 연구, 고려대 석사, 1985, p.41

10)나루미 구니히로의 저, 도시디자인연구회 역, 도시디자인 수법, 발언, 1997, p.54

시되고 있다. 사람들은 대개 오래된 경관을 좋아하는 복고적 특성이 있다고 한다. 오래된 도시에는 지역마다 각각 고유의 빛깔이 있다. 이러한 빛깔을 찾아 현대도시에서도 같은 계통의 빛깔을 사용하여 지역성에 바탕을 둔 지역개발이 필요할 것이다.¹²⁾ 외국 사례들을 보면 이러한 도시의 색을 찾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5>의 마카오의 세인트 폴 대성당(Igreja de St. Paulo)은 1835년의 화재로 성당 파사드와 지하 납골당을 제외하고 모두 소실되었다. 일반적으로는 화재 후 남은 부분을 철거하고 새로운 현대식 건물을 세웠겠지만 이 경우는 파사드를 보존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도심에서는 용적률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규모가 더 크고 높은 건물을 지어야 한다. 특히 근대건축과 같은 역사적 건물이 들어서 있는 경우, 경제적으로 더 저렴한 오래된 근대건축을 헐고 새로운 현대식 건물로 신축하는 방식이 채택된다. 그러나 최근 최대한의 개발과 동시에 기존 건물의 일부를 보존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채택하고 있다. 그 중에서 역사적 건축물에 있어서 정면의 일부분만을 유지시키려는 시도는 최근에 더욱 일반화되고 있다. 이것은 개발업자들에게는 최대한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지를 충분히 개발할 수 있게 해주며, 반면에 보존주의자들에게는 건물의 원래 외관을 보존시킴으로써 만족을 주고 있다.¹³⁾

<표 2> 일본 고베(神戸)시 경관조례(일반지구예) 및 지역경관형성기준(카타노·야마모토 지구)

건물높이	13m이하(계단실등 포함)	
벌채	일정규모를 넘는 수목 등은 벌채하지 않는다.	
토지형질변경	주위의 경관과 조화	
담 높이	2m 이하	
건축설비 등	도로등에서 보이는 위치에 설치하지 않는다.	
건축물 외장	형태, 색채, 재료	
식재	공지 및 비탈면에 식재	
인접지로부터	1.0m 이상	
도로로부터	벽면 후퇴 1.5m 이상	※해가리기 텐트는 설치하지 않는다.

개성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건축물과 역사적인 자산을 조사하여 이것들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단순한 점(點)적 시설에 머무르지 않고 연속한 선(線) 단위로 육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가로로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파사드(Facade)의 경관이 중요한데 이를 위하여 보존과 경관을 위한 심의회를 설치하거나 <표 2>¹⁴⁾와 같이 경관기

11)清水眞一 외 3인, 歴史ある建物の活用かし方—全国各地119の活用事例ガイド, 京都, 學芸出版社, 2001, p.16 참조
 12)장호수, 문화재학개론, 백산자료원, 2002, p.177
 13)David R. Dibner·Amy Dibner-Dunlap 저, 하재명 역, 건축 중·개축 디자인, 태림문화사, 1995, p.160
 14)安田丑作, 都市景観形成のための計劃構成と建築デザイン誘導に関する研究, 神戸大學 博士論文, 1990, p.100

준을 마련하기도 한다. 이때 전통적인 건축물의 기준(허가기준)과 지정지구 내의 건축물 유도기준 등이 있다. 전자는 재료에서부터 아주 세세한 부분에 관한 규정이지만, 후자는 건물형식, 높이, 위치, 외장, 지붕, 외벽, 개구부 등 조금은 개략적인 기준이 되는 경향이 있다.¹⁵⁾

3.3. 근대 양식건축의 파사드 구성요소

건물의 기능적 요구(창, 문, 차양, 지붕)를 고려한 파사드는 장식적 요소, 색채, 재료, 수직·수평 구조, 적당한 비례에 조화로운 구성체계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비트루비우스 이래 건축가들은 리듬을 더욱 발전시켜 파사드에 이상적인 오더와 질서를 부여했다. 특히 절대미를 추구한 르네상스 시대는 새로운 비례 체계와 수 체계를 만들어 냈다. 또한 파사드는 구조화와 질서화가 드러난다. 기초, 창, 지붕의 본질적인 특성은 서로 다르며 따라서 그 형태와 색채 그리고 재료 역시 다르다. 구조 이외에도 파사드에 생동감을 불어넣기 위한 기능이나 단순한 이야기 형식의 많은 요소들이 있다. 보의 테두리와 상인방은 빛물받이 파이프, 덧문, 지붕 보호막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며, 그들은 매스나 느슨한 재료, 박스형 창을 강조하며 버치니아 덩굴 식물은 계절의 변화를 알려준다.¹⁶⁾

<표 3> 역사적 건물의 형태 구성요소의 일부 예

분류	구성 요소					
위치	중앙 박공 파사드	중앙 주 파사드	한쪽으로 치우친 박공 파사드	한쪽으로 치우친 주 파사드	다수 주 파사드	다수 박공 파사드
개구부 형상	플랫폼	활꼴형	반타원형	반원형	오지형	첨두형
문 윗틀	장식 없는 트림	물딩된 트림	장식 없는 인방	장식된 인방	키스톤, 홍예식 아치	장식 없는 페디먼트
타입	장식 없는 수직형	2막, 2 판넬형	6 판넬형	팬 판넬형	장식형	플러시 또는 라미네이트

Irwin(2003)은 건물의 구성요소로 기둥, 코너, 창, 창틀, 천창(skylights), 스테인드글라스, 도머(dormers), 문과 문틀, 엔타블레처(entablatures), 물받이 홈통(gutters), 수직홈통(downspouts), 연도(vents), 벽난로, 플래싱(flashings)로 나누고, 이러한 구성요소들이 매스, 스케일, 비례, 크기로 조정된다고 하고 있다.¹⁷⁾ 역사적인 건축물일 경우에는 이러한 파사드의 독특한 디자인들이 도시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고 가로경관을 창출하는데 일

15)日本建築學會, 建築設計資料集成—總合編, 産業圖書出版社, 2002, p.578
 16)Rob Krier 저, 앞의 책, p.122
 17)J. Kirk Irwin, Historic Preservation Handbook, McGraw Hill, 2003, p.46, pp.96~126

익을 담당하게 된다. 이러한 근대 양식건축 파사드의 디자인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파사드를 구성하고 있는 형태요소와 조형원리를 <표 3>¹⁸⁾과 같이 분석할 필요가 있고 이를 바탕으로 보존과 활용 계획을 수립하거나 증·개축시에 디자인지침 (design guideline)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표 4> 서울시 소재 '사적' 근대 양식건축 현황

시기 (준공일)	문화재명	규모·용도		시기 (준공일)	문화재명	규모·용도				
		구조	구조			구조	구조			
1884 ~ 1900	1884 우정총국	1	업무	1908 ~ 1930	1908 구공업전습소 본관	2	교육			
	1890 구 러시아 공사관(탑)	3	업무		1912	한국은행 본관	B1, 3	업무		
		조적조					RC			
	1892 약현성당	1	종교		1920	연세대학교 스텐슨관	2	교육		
		조적 + 목조트러스					목조트러스			
		1897 독립문 (이전·복원)	3(2)				종교	1921 중앙고등학교 서관	2	교육
			조적조				조적조			
	1897 정동교회	-	공공용		1923 중앙고등학교 동관	2	교육			
		석조						조적조		
	1898 명동성당	1	종교		1924 연세대학교 아펜젤러관	B1, 2	교육			
조적조		목조트러스								
1900 ~ 1910	1902 원효로성당	B1, 1	종교	1925 연세대학교 언더우드관	B1, 3	교육				
		조적조			목조트러스					
	1905 구 벨기에 영사관 (이전·복원)	3	종교	1931 구서울대학교 본관	B1, 2	업무				
		조적조					RC			
	1907 구 대한의원 본관	B1, 2	업무	1934 고려대학교 본관	3	교육				
		조적조					RC			
	1907 구 서울구치소	2	의료	1937 중앙고등학교 본관	3	교육				
		조적조					RC			
	1907 윤현궁 양관	2	주거							
		조적+목조								

<표 5> 서울시 소재 '사적' 근대 양식건축의 지정 내용

구분	대표 사례	구분	대표 사례
장소 및 사건	정치	구 러시아 공사관	건축사 (建築史) - 건축계획
	행정	우정총국	
	의료	구 대한의원 본관	
	종교	명동성당	
	교육	연세대학교 스텐슨관	
	업무	서울 역사	
인물	정치	윤현궁 양관	건축사 (建築史) - 의장 및 양식
	종교	용산신학교와 원효로성당	
	교육	연세대학교 언더우드관	
	문화·경제	중앙고등학교 서관	
	건축	중앙고등학교 본관	
건축사(建築史) - 설비	고려대학교 본관	기타	구 서울구치소

1985년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서울 도심지의 랜드마크적 건물 을 조사 발표한 것을 보면 매우 흥미 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그 조사에 따르면 랜드마크적 건물은 성별과 나이에 따라 그 선호도가 달리 나타났으며, 종로와 태평로에서 화신백화점, 단성사, 서울시청, 동아일보 등이 서울역, 중앙청과 함께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¹⁹⁾ 서울은 600년 수도로서 그리고 암울했던 근대기의 역사성을 지닌 장소로서의 의미를 동시에 지닌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위의 조사와 같이 당시의 건축물인 근대 양식건축 또한 서울의 장소성을 기억하게 하는 중요한 인자임을 알 수 있다. 서울이 전통건축, 근대건축 그리고 현대건축이 어우러져 다양한 흔적을 남겨놓을 때 역사도시로서의 정체성을 지닐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에 소재하는 근대 양식건축은 크게 사적,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기념물과 등록문화재로 나뉘어져 있으며, 그 가운데 <표 4>와 같이 국가지정문화재인 24개 '사적'²⁰⁾을 대상으로 하였다. 시기적으로는 1884년부터 1937년에 준공되었으며, 용도 별로 보면 주거(1개), 의료(1개), 공공용(2개), 업무(5개), 종교(5개), 교육(10개)으로 분류된다. 이들은 <표 5>와 같이 장소 및 사건, 인물, 건축사(建築史)와 관련된 건축계획, 의장 및 양식, 설비의 5가지의 내용들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표 6> '구 벨기에 영사관'의 파사드 특성을 활용한 가로경관의 디자인지침 예



건축물의 높이		2층 이하(계단실, 고가수조, 냉각탑 등을 포함)	
출입구 형태		포치(porch)	
파사드 (Facade)	형태 (形態)	지붕부	경사지붕, 지붕치마, 굴뚝
	벽체부	사각창, 난간, 석조기둥(1층-도리, 2층-이오닉, 세로홈), 석조 수평띠, 발코니, 포치	
		기단부	석조 기단, 사각형 개구부
재료	합석, 적벽돌, 화강석		
색채	적색계열		
기타(조형원리 등)		좌우대칭, 르네상스 양식	

4. 서울시 근대 양식건축의 파사드 특성 분석

4.1. 현황 및 지정사유별 분석

18) James M. Fitch, Historic Preservation: Curatorial Management of the Built World, University Press of Virginia, 2001, p.309

4.2. 파사드 구성요소 분석

사례들은 6개 용도로 구분되며 파사드의 표현 특성을 살펴

19) 김정동, 앞의 책, p.31

20) '사적'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유사 이전의 유적, 제사·신앙에 관한 유적, 정치·국방에 관한 유적, 산업·교통·토목에 관한 유적, 교육·사회 산업에 관한 유적, 분묘·비 등에 관련되어 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

보기 위하여 <표 13, 14, 15>에서의 같이 기단부, 벽체부, 지붕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들 근대 양식건축이 지닌 디자인특성들은 <표 6>과 같이 건축물이 위치한 가로경관을 제어하는 디자인지침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점(點) 단위의 보존이 아닌 선(線) 단위, 즉 가로경관차원의 보존과 활용방안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1) 주거

<표 14>의 운현궁 양관은 구한말 근대사적 건물로서 20세기 초(1907~1911년 준공) 주거의 한 유형이다. 파사드는 좌우대칭의 르네상스 양식이며 아치형 개구부(keystone 포함)가 연속 2번 반복되어 있다. 또한 <표 7>과 같이 피라밋형과 돔형의 지붕형태, 지붕창(dormer), 수평코니스, 벽체부의 오더 형식(터스칸, 이오닉 오더), 아치창 등이 파사드의 독특한 구성요소이다. 출입구는 포치형식으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다.

<표 7> '주거' 용도의 파사드 표현 특성 분석표

파사드의 대표적 구성요소 예					
기단부(下)	벽체부(中)			지붕부(上)	
	창1	창2	장식	지붕	기타
활꼴형 개구부	아치형	사각형 (페디먼트)	이오닉오더	피라밋형	지붕창 (dormer)
운현궁 양관					

(2) 의료

<표 14>의 구 대한의원 본관은 개화기 이후 서양식의 국내 최초 의료기관으로 기념성이 강조된 고전주의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20세기 초(1907년 준공)의 의료시설로 파사드는 좌우대칭이며 사각창이 2~3회 반복되고 있다. 현관은 노르만풍, 벽돌조로 된 벽체는 르네상스양식, 시계탑은 네오 바로크풍으로 되어 있다. <표 8>과 같이 동판으로 된 우진각 지붕, 시계탑, 수평코니스, 베네시안창, 아치창, 돌림띠, 코너석 등이 특징이다.

<표 8> '의료' 용도의 파사드 표현 특성 분석표

파사드의 대표적 구성요소 예					
기단부(下)	벽체부(中)			지붕부(上)	
	창1	창2	장식	지붕	기타
사각형개구부 (화강석인방)	베네시안형	사각형 (인방)	난간(上), 돌림띠(下)	시계탑	난간(上), 수평코니스(下)
구 대한의원 본관					

(3) 공공용

<표 9, 13, 14>에서 보면, 독립문(1897년, 이전·복원)은 사대외교의 표상인 영은문을 헐고 영구 독립의 상징물로 건립된 것으로 상부의 난간, 오얏꽃 무늬의 이맛돌, 좌우 화강석 기둥,

중앙의 아치문(keystone 포함) 등이 주요 특징이다. 구 서울구치소(1907년)는 적벽돌과 한식기와, 슬레이트로 된 옥사 건물로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 등의 사회사가 남아 있는 장소이다. 맞배지붕과 채광창, 아치창, 외벽의 돌림띠가 특징이다. 두 건물 모두 파사드가 좌우대칭의 원리로 구성되어 있다.

<표 9> '공공용' 용도의 파사드 표현 특성 분석표

파사드의 대표적 구성요소 예					
기단부(下)	벽체부(中)			지붕부(上)	
	창	문	장식	지붕	기타
활꼴형 개구부	반원아치형	반원아치형 (keystone)	화강석 기둥	난간(上), 현관석(下)	코너석
구 서울구치소			독립문		

(4) 업무

<표 10, 13, 14, 15>에서 보면, 모두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업무시설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우정총국(1884년)은 팔작기와 지붕의 근대한옥으로 된 최초의 우편행정관서로 익공 다포집 형식으로 되어 있다. 구 러시아공사관(1890년)은 조선말 고종의 아관파천과 관련된 곳으로 쌍반원형 아치창, 페디먼트(pediment), 흰 회반죽 칠로 된 단순한 외벽에 수평줄눈과 인방이 있는 사각창, 개선문 형식의 아치문 등이 특징이며 전체적으로 르네상스 양식으로 되어 있다. 구 벨기에영사관(1905년, 이전·복원)은 함석 경사지붕, 처마, 사각창, 난간, 석조기둥(도릭, 이오닉), 수평띠 등이 특징적이며 창과 외벽 장식, 석조기둥 등이 르네상스 양식의 고전주의 수법을 따르고 있다. 한국은행 본관(1912년)은 반원형 아치 지붕, 박공면, 원형의 탑, 돔(dome), 지붕창, 홍예석(key stone)을 둔 활꼴형 아치(segmental arch), 수평띠, 터스칸 오더로 된 포치 등이 특징인 르네상스 양식으로 되어 있고, 서울역사(1925년)는 볼트, 첨탑, 돔, 랜턴(lantern), 지붕창(dormer), 수평띠, 아치창, 러스티케이션(rustication) 수법, 코너석 등 르네상스풍의 절충적 고전수법을 따르고 있다.

<표 10> '업무' 용도의 파사드 표현 특성 분석표

파사드의 대표적 구성요소 예					
기단부(下)	벽체부(中)			지붕부(上)	
	창1	창2	장식	지붕	기타
외벌대 화강석 장대석 기단	활꼴 아치형 (keystone)	사각형 (몰딩)	이오닉오더 와 수평띠	랜턴	페디먼트
우정총국	한국은행 본관	구 벨기에 영사관	서울역사	구 러시아 공사관(탑)	

(5) 종교

<표 11, 13>에서 보면, 약현성당(1892년)은 로마네스크와 고

덕양식으로 된 최초의 양식 성당으로 지붕창, 이중 첨두아치창, 원형창, 종탑, 부축벽과 첨두아치형(pointed arch) 출입문 등이 특징이다. 용산신학교(1892년)는 르네상스풍으로 지붕창, 수평 코니스, 활꼴형 아치창, 벽기둥 등이 특징이며, 정동교회(1897년)는 한국의 전통적인 수법(세벌대 화강석 기단)이 가미된 적벽돌의 통일되고 간결한 외관을 지니고 있으며 4각의 종탑, 굴뚝, 아치창, 트레이서리 장식, 부축벽 등이 특징이다. 명동성당(1898년)은 19세기 서양식 고딕건축으로 종탑, 첨탑, 적벽돌과 회색벽돌을 혼용한 벽체, 부축벽, 원형창, 첨두아치창 등이 특징이다. 원효로성당(1902년)은 로마네스크와 고딕 양식이 절충된 19세기 말 성당건축의 일면을 보여주며 첨탑, 첨두아치창, 부축벽 등이 파사드 특징이다.

<표 11> '종교' 용도의 파사드 표현 특성 분석표

파사드의 대표적 구성요소 예					
기단부(下)	벽체부(中)				지붕부(上)
	창1	창2	문	장식	
세벌대 화강석 정층쌓기 기단	활꼴 아치형 (아치 인방)	원형	첨두아치형	부축벽	첨탑
정동교회	용산신학교	약현성당	명동성당	원효로성당	명동성당

(6) 교육

<표 12, 14, 15>에서 보면, 구 공업전습소 본관(1908년)은 돔, 지붕창, 첨탑, 수평코니스, 디오크레티안(Diocletian) 창, 활꼴형 개구부가 있는 포치 등이 특징인 르네상스 양식의 'C'형 좌우대칭 건물이다. 연세대학교 스팀슨관(1920년), 아펜젤러관(1924년), 언더우드관(1925년)은 맞배지붕, 베이 윈도우(bay window), 운모 편암석의 거친 외벽 마감, 정면의 탑(언더우드관) 등이 특징인 좌우대칭의 고딕풍 건물이다. 중앙고등학교서관(1921년)과 동관(1923년)은 경사지붕, 지붕창, 굴뚝, 화강석을 혼용한 적벽돌 외벽 마감, 첨두아치 창 등 고딕풍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구 서울대학교 본관(1931년)은 철근콘크리트와 조적조로 된 근대 합리주의 양식을 따르고 있어 전체적으로 장식이 배제된 단순하고 견고한 파사드를 지니고 있다. 고려대학교 본관(1934년)은 'H'형 좌우대칭 건물로 맞배지붕, 지붕창, 중앙탑, 중세 성관의 여장, 석조 정층(整層)쌓기의 외벽 마감, 부축벽, 아치창 등이 특징이며, 중앙도서관(1937년)은 'L'형 비대칭 건물로 맞배지붕, 지붕창, 탑, 첨두아치, 고딕식 튜렛(turret), 부축벽 등이 특징인 고딕 성관풍 건축이다. 중앙고등학교 본관(1937년)은 'H'형 좌우대칭 건물로 맞배지붕, 지붕창, 탑, 베이 윈도우, 석조 정층쌓기 등이 특징인 고딕풍 건물이다.

<표 12> '교육' 용도의 파사드 표현 특성 분석표

파사드의 대표적 구성요소 예					
기단부(下)	벽체부(中)				지붕부(上)
	창1	창2	창3	창4	
사각형 개구부 (석재인방)	디오크레티안 (Diocletian)	첨두아치형 (2중)	베이윈도우 (bay window)	아치창	여장
연세대학교 스팀슨관	구공업전습소 본관	중앙고등학교서관	연세대학교 아펜젤러관	구서울대학교 본관	고려대학교 본관

5. 결론

건축은 물리적 공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시간의 경과 속에서 상징적 의미 전달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역사적 건축일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근대 양식건축은 우리나라 근대기의 여러 단편들을 저장하고 있는 매체로서 현재에도 사용되고 있거나 되어 질 수 있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경제적 논리로 존폐를 결정하기에는 많은 아쉬움이 있다. 따라서 도심에서 근대 양식건축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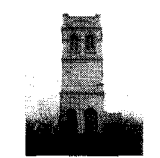






본 연구의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무색무취의 현대도시 보다는 역사의 흔적을 통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도시 공간 창출이 세계 속에서 경쟁력 있는 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근대 양식건축을 도시의 정체성을 확인할 자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철거 또는 원형 보존이라는 이분법적 논리가 아니라 근대 양식건축이 위치하는 제자리에서 의미 있는 일부분이라도 보존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건물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파사드의 보존과 활용방안이 검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파사드의 디자인특성들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서울시에는 '사적'으로 지정된 근대 양식건축이 모두 24개 등이 있다. 시기적으로 1884년에서 1937년에 걸쳐 완공되었으며 주거 1개, 의료 1개, 공공용 2개, 업무 5개, 종교 5개, 교육용도가 제일 많은 10개의 사례가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은 각각 '장소 및 사건', '인물', '건축설비', '건축계획', '건축의장 및 양식'의 내용으로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아 사적으로 지정되었다.

주거용도의 경우, <표 7>과 같이 출입을 위한 돌출된 포치, 홍예석을 포함한 아치형 개구부, 벽체부의 오더 장식, 지붕창 등이 특징이며 파사드가 좌우대칭의 르네상스양식으로 되어있다. 의료용도는 <표 8>과 같이 포치, 베네시안 창, 인방 있는 사각창, 난간, 돌림띠, 지붕의 시계탑 등이 파사드의 구성요소로 발견되며 기념성이 강조된 좌우대칭의 다양한 고전주의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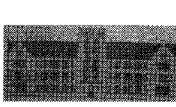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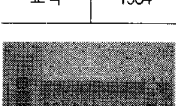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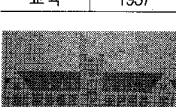
<표 13> 서울시 소재 '사적' 근대건축의 파사드 표현 특성 분석표-1

사진 또는 도면		형 태		재료	
근대건축물명		파사드 구성요소	조형원리 및 기타 분석		색채
용도	시기		지붕부(上)	건축가(설계) 및 프로그램	
			벽체부(中)		
기단부(下)					
	조선 후기 양식, 익공 다포집(정면5칸, 측면3칸)	기와, 목재, 화강석			
우정총국 업무	1884	외벽대 화강석 장대석 쌓기, 화강석 주초석	흑+적+백		
	좌우대칭(탑), 반복(아치창 2회), 르네상스 양식	화강석, 회색벽돌(舊), 흰회반죽 칠(現)			
구 러시아 공사관(탑) 업무	1890	러시아인 사바틴(Afanasy Ivanovich Seredin Sabatin)	백색		
	좌우대칭, 로마네스크+고딕양식	동판, 적벽돌, 석재			
약현성당	1892	프랑스 신부인 코스트(E. G. Coste, 한국명 高宜善)	청+적색		
	원형·반원형 아치창, 수평띠, 부속벽, 첨두아치형 출입구, 로마네스크양식의 벽식구조	적벽돌			
용산 신학교	1892	프랑스 신부인 코스트(E. G. Coste)-설계 및 감독	적색		
	좌우대칭 상부 돌난간, 오얏꽃 무늬 이맞돌, 현판석(한글, 한자 각 1개소)	화강석			
독립문	1897	건축양식은 서재필이 구상, 파리의 개선문(凱旋門)을 참고	백색		
	비대칭, 반복, 수직성(탑), 미국식 고딕풍 경사(맞배)지붕, 종탑, 굴뚝	화강석, 적벽돌			
정동교회	1897	일본인, 1887년 배재학당을 설계한 길택(吉澤)으로 추정	흑+적+백		
	좌우대칭, 반복(첨두아치 2회), 수직성(탑), 네오 고딕양식	동판, 적벽돌, 회색 벽돌			
명동성당	1898	프랑스 신부인 코스트(E. G. Coste, 한국명 高宜善)	흑+적색		
	비대칭, 반복, 고딕적 특징 많음(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천장, 제대부의 천장구성), 로마네스크+고딕양식 절충	회색벽돌, 적벽돌			
원효로 성당	1902	프랑스 신부인 코스트(E. G. Coste)-설계 및 감독	적색		

<표 14> 서울시 소재 '사적' 근대건축의 파사드 표현 특성 분석표-2

사진 또는 도면		형 태		재료	
근대건축물명		파사드 구성요소	조형원리 및 기타 분석		색채
용도	시기		지붕부(上)	건축가(설계) 및 프로그램	
			벽체부(中)		
기단부(下)					
	좌우대칭, 르네상스 양식	합석, 적벽돌, 화강석			
구 벨기에 영사관	1905	경사지붕, 지붕처마, 굴뚝	적색		
	사각창, 난간, 석조기둥(1층-도리, 2층-이오닉, 세로홈), 석조 수평띠, 발코니, 포치	적색			
구 대한의원 본관	1907	사각형 개구부(화강석 인방), 코너석	적색		
	좌우대칭, 반복(사각창 2·3회), 노르만풍(원관), 르네상스양식(벽), 네오바로코크풍(시계탑) 등	적벽돌, 한식기와, 슬레이트			
구 서울구치소	1907	사각·활꼴형 개구부	청+적색		
	원형·반원형 아치창, 수평띠, 부속벽, 첨두아치형 출입구, 로마네스크양식의 벽식구조	적벽돌, 한식기와, 슬레이트			
운현궁 양관	1907~1911	가타야마 도오쿠마(片山東熊)-일본의 궁정건축 신도	흑+백색		
	좌우대칭, 반복(아치 2회), 프렌치 르네상스양식	목재, 석재, 벽돌			
구 공업전습소 본관	1908	설계(타치부 건축소), 시공(요시다 겐조(吉田謙造))	흑+백색		
	원형·첨두아치 창, 트레이서리 장식, 부속벽	회색 벽돌			
한국은행 본관	1912	설계(다쓰노 김고(辰野金吾)), 시공(청수조(清水組))	흑+백색		
	좌우대칭, 고딕풍 경사(맞배)지붕, 슬레이트이음 bay window, 운모편암석 거친 마감, 튜더풍 아치 출입구	슬레이트, 석재(운모 편암)			
연세대학교 스템스관	1920	사각형 개구부(상하 석재 인방, 2·3분할)	청+백색		
	원형·반원형 아치창, 수평띠, 포치(터스칸오더)	슬레이트, 적벽돌, 화강암			
중앙고등학교 서관	1921	사각형 개구부(벽돌 인방)	청+적색		
	원형·반원형 아치창, 수평띠, 부속벽	회색벽돌, 적벽돌			
중앙고등학교 동관	1923	사각형 개구부(벽돌 인방)	청+적색		

<표 15> 서울시 소재 '사적' 근대건축의 파사드 표현 특성 분석표-3

사건 또는 도면		형 태	
근대건축물명	파사드 구성요소	조형원리 및 기타 분석	재료
		지붕부(上)	
		벽체부(中)	
용도	시기	기단부(下)	색채
건축가(설계) 및 프로그램			
	연세대 아펜젤러관	좌우대칭, 반복(사각창 3회), 고딕풍	슬레이트, 석재(운모 편암)
		경사(맞배)지붕, 슬레이트이음	
교육	1924	bay window, 사각창, 운모편암석 거친 마감, 화강석 인방, 튜더풍 아치 출입구	청+백색
		사각형 개구부	
	연세대 언더우드관	좌우대칭, 반복(사각창 4회), 고딕풍	슬레이트, 석재(운모 편암)
		경사(맞배)지붕, 슬레이트이음, 탑(정면성)	
교육	1925	bay window, 운모편암석 거친 마감, 화강석 인방, 튜더풍 아치 출입구	청+백색
		사각창	
	서울 역사	좌우대칭, 르네상스풍의 절충주의 양식	붉은타일, 화강석, 철골철근 콘크리트
		볼트, 첨탑, 돔, 랜턴, 지붕창, 경사지붕 / 정면성	
업무	1925	수평띠, 사각창, 아치창, 러스티케이션, 코너석	적색
		화강석 기단	
	구 서울대학교 본관	프카모토 야스시(塚本靖), 다쓰노 킨고(辰野金吾)의 제자, 다쓰노 킨고는 도쿄역사(東京驛舎)를 설계했음	적벽돌
		비대칭, 반복(사각·반원형아치 창 3회), 층수와 매스의 변화, 로마네스크 풍	
교육	1931	평지붕, 파라펫	적색
		사각·아치창, 포치(반원형 아치)	
	고려대학교 본관	암규선지(岩楸善之), 시공(미야카와구미(宮川組)), 일제 때 관리건물의 설계와 감독은 조선총독부 소속 건축부서가 수행	슬레이트, 화강암
		'H'형의 좌우대칭, 반복(사각·아치창 2·3회), 고딕풍	
교육	1934	경사(맞배)지붕, 지붕창, 중앙탑(정면성), 중세 성관의 여장	청+백색
		사각·첨두아치 창, 석조 정충쌓기, 중앙 탑 부속벽, 첨두아치 출입구	
	고려대 중앙도서관	석조 정충쌓기 기단	청+백색
		설계(한국 근대 건축의 선구자인 박동진(朴東鎭)), 시공(후지따 고오기로오(勝田幸二郎)), 소유자 김성수의 영향	
교육	1937	'L'형의 비대칭, 반복(수평·첨두아치 창), 고딕양식	화강암
		경사(맞배)지붕, 지붕창, 탑	
	중앙고등학교 본관	첨두·수평아치, 고딕식 튜렛(turret), 부속벽, 첨두아치 출입구	화강암
		bay window, 사각창, 석조 정충(整層)쌓기, 첨두아치 출입구	
교육	1937	화강석 기단	청+백색
		설계(박동진), 김성수는 당시 한국의 대표적인 건축가인 박동진에게 설계 의뢰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공공용의 사례들은 <표 9>와 같이 좌우대칭의 입면을 가지고 있으며 아치창과 돌림띠(구 서울구치소), 벽체의 석조 기둥, 난간, 이맛돌 장식(독립문) 등이 특징이다. 업무용도는 <표 10>과 같이 근대한옥 형식의 우정총국을 제외하고 모두 르네상스풍의 고전수법을 따르고 있는데, 쌍반

원형 아치창(구 러시아공사관), 도리과 이오닉오더 형식의 석조 기둥(구 벨기에 영사관), 원형의 탑과 돔(한국은행 본관), 랜턴과 지붕창(서울역사) 등이 특징이다. 종교용도는 <표 11>과 같이 원형창, 첨두아치 창, 지붕창, 부속벽, 트레이서리 장식, 첨탑 등 고딕과 로마네스크풍의 양식적 특징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례가 가장 많은 교육용도는 <표 12>와 같이 근대합리주의 양식의 구 서울대학교 본관과 르네상스양식의 구 공업전습소 본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고딕풍이며 석조 정충쌓기, 베이 윈도우, 첨두아치 창, 지붕창, 탑 등이 파사드의 디자인 특징으로 분석되었다.

사적으로 지정된 서울시 근대 양식건축들의 파사드는 지붕부에서 지붕창, 굴뚝, 난간, 수평코니스, 돔, 탑 등이, 벽체부에서는 창호의 형태, 장식 요소, 벽면 마감 등이, 기단부에서는 개구부의 형태(활꼴형, 사각형, 인방의 유무), 벽체부와와의 이질 재료 사용 및 쌓기방식 등의 조형적 특징과 재료 및 색채에서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음이 분석되었다.

셋째, 이들 파사드의 형태, 재료 및 색채의 디자인 특성들은 <표 6>과 같이 근대 양식건축의 파사드(facade)가 면한 가로경관을 제어하는 디자인지침(design guideline)으로 사용 가능하며 이를 통하여 서울의 정체성 즉, 근대기의 역사성을 만들어가는 귀중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도시에서 역사적 흔적들을 찾아내고 이를 활용한다 디자인들이 많아질 때 서울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풍요로운 경관을 지닌 독특한 도시로 되살아 날 것이다.

참고문헌

1. 김정동, 근대건축기행, 푸른역사, 1999
2. 윤일주, 한국·양식건축 80년사, 치정문화사, 1972
3. 장호수, 문화재해개론, 백산자료원, 2002
4. 강영환, 전통건축의 입면체계:그 상과 형, plus, 통권24호, 1989
5. 김정신, 시대론적의 보전, 건축, 제39권 제7호, 대한건축학회, 1995
6. 오선경, 한국근대건축에 나타난 외장요소에 관한 연구, 고려대 석논, 1985
7. 이완건, 서울의 역사성 표현을 위한 근대건축 보존에 관한 연구, 홍익대 박논, 2005
8. 나루미 구니히로의 책, 도시디자인연구회 譯, 도시디자인 수법, 발언, 1997
9. 清水眞一 의 3인, 歴史ある建物の活用かし方—全国各地 119 の活用事例ガイド, 京都, 學芸出版社, 2001
10. 東京都, 周邊景觀に配慮するための手引-地域の文脈を解讀する, 1997
11. David R. Dibner · Amy Dibner-Dunlap 著, 하계명 譯, 건축 중 · 개축 디자인, 태림문화사, 1995
12. J. Kirk Irwin, Historic Preservation Handbook, McGraw Hill, 2003
13. James M. Fitch, Historic Preservation: Curatorial Management of the Built World, University Press of Virginia, 2001
14. Rob Krier, Elements of Architecture, AD Publication Ltd, 1983

<접수 : 2009. 2. 20>